

글. 봉주희\_ Bong, Joo-hee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봉주희건축 대표

# 세계평화공원으로 제안한 한국 D.M.Z.의 RejuveNATION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포럼 중

Towards A World Peace Park\_RejuveNATION of the Korean D.M.Z.

필자는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The 16th Asia Congress of Architects, ACA16/Datum: KL 2014)의 연사 초청을 받아, 한국 대표이자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으로서 대회 주제인 'RejuveNATION'를 기조로 하여 직접 디자인한 '한국 비무장지대, D.M.Z의 RejuveNATION' 프로젝트들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Datum:KL 강연회는 6월 23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제35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The 35th Architect Regional Council of Asia, ARCASIA) 이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회의, 심포지엄, 포럼, 전시회 등)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가 주관하여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회는 'RejuveNATION'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도시 및 세계 각처에서 이미 노쇠했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패턴에 대한, 미래 유산으로서의 건축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11명의 연사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각자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RejuveNATION'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강연회



DMZ-South Korea\_ North Korea-Two Interweaving Deflected Brid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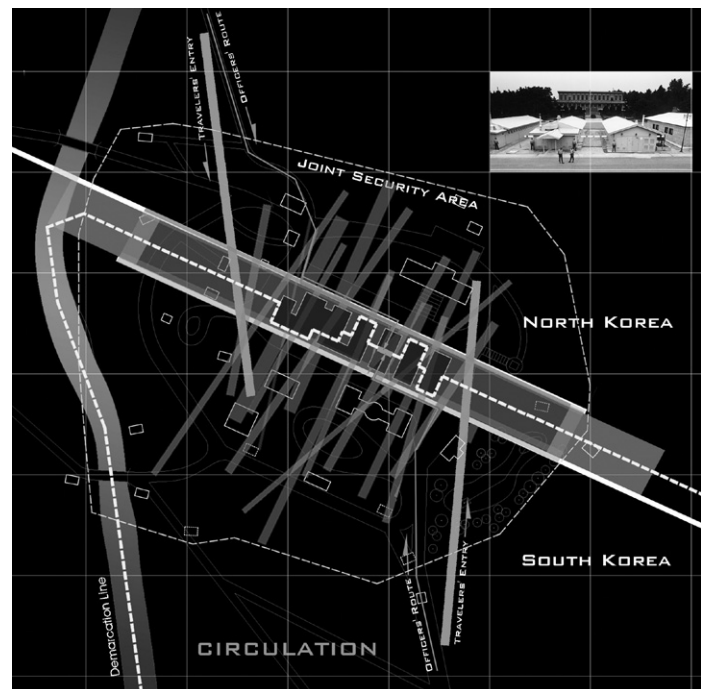
필자는 포럼의 주제인 ‘RejuveNATION’의 개념을 재정의 (redefine)하여 ‘한국 D.M.Z.의 RejuveNATION’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하였다. 이 포럼이 다른 포럼들과 다르게 독특한 점은 각 나라별로 한 명씩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기획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로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Geo-Political) 장소성과 지역성(site-specific siteness, context, and condition)을 재해석하여 개념을 본인만의 건축어휘(architectural language)로 구현하여 도출시킨 D.M.Z. 프로젝트들 중 2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D.M.Z. 프로젝트 강연은 주제 ‘RejuveNATION’에서 ‘NATION’만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만큼 빌딩이나 지역, 도시 등의 리모델링·리노베이션·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리뉴얼 차원에서 벗어나 한층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으로의 RejuveNATION을 지향하는 거시적 차원으로 시각과 관점을 넓히는 것의 필요성을 재인식 할 제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영토(the utmost critical condition & territory)인 한반도 남북한 사이의 D.M.Z.를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어떻게 RejuveNATION 할지에 대해 디자인한 본인의 프로젝트들과 더불어 관련 이슈들을 강연함으로써, 다른 강연자들 및 청중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DATUM 2014의 강연회 주제와 맥락(context)에 매우 잘 맞는 적합성과 더불어 시사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필자의 강연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에서 기인한 비무장지대(D.M.Z)를 독특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곳을 남북 교류 및 평화벨트로 규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남과 북의 주민이 함께 만나는 ‘시간과 공간(Time & Place)’의 융합 장소를 제시하는 건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본인만의 건축적 어휘를 사용해 형태적이고 프로그램적(architectural formal language & programmatic)으로 도출시킨 2개의 D.M.Z. 디자인 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첫 번째 프로젝트\_ Bridges Of No Return :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에 남북한의 정상회담 장소와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이산가족과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 더불어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존재할 수 있는 ‘Wall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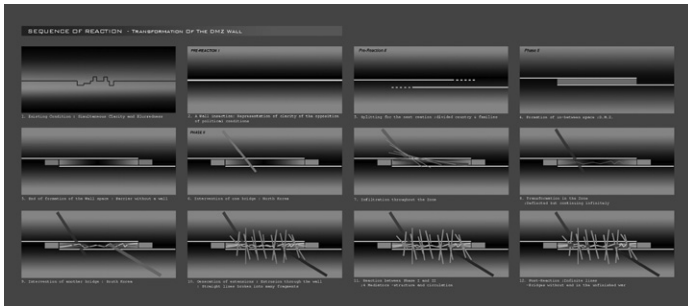
Memorial’로 디자인한 ‘한국 D.M.Z.의 RejuveNATION’ 프로젝트다.



JSA Circulation Diagram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155mile×4km의 D.M.Z.구역(Dead-Zone, No-Man’s Land)을 생태공원으로 보전하면서 3~5개 지점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개발(selective-development)하는 것이다. 즉, 이미 천연기념물 수준의 가치가 있는 동·식물들이 생존하는 광활한 이 구역의 생태학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동시에 남북한의 교류·화합·만남이 이루어지며 기념하고 여행할 만한 지역(memorial & touristic site) 몇 개 지점에서만 서로 왕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 계획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관계가 더욱 호전되는 상황이 되면, 3~5개로 설정한 지점의 개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체 D.M.Z. 지역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 및 조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적당한 접점(relevant interface) 들을 모두 통합하는 차원에서 RejuveNATION하는 것이 나의 디자인 아이디어다. 또한 건축사로서 이러한 건축적인 중재와 제스처들을 계기로 가까운 미래에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의 우호적 관계, 더불어 통일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RejuveNATION’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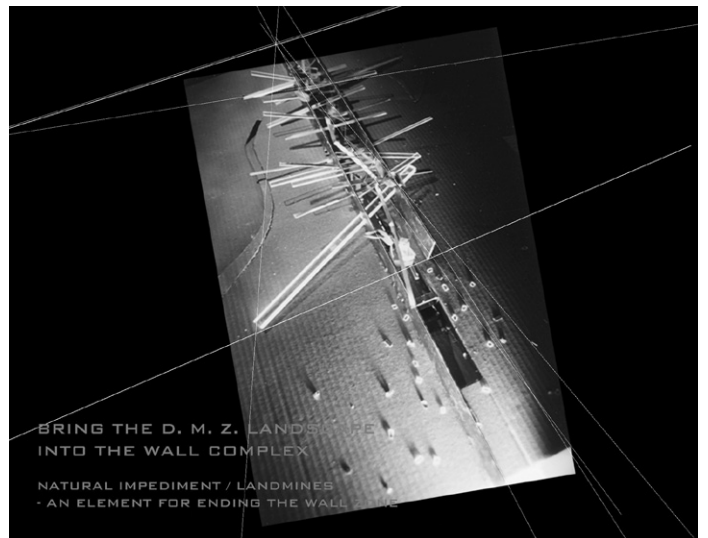


DMZ-Bridges Of No Return

남북한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몇 개의 지점 중 첫 번째로 계획하는 것은 판문점의 J.S.A.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다. 휴전선(Concrete demarcation line)의 토폴로지(topology)를 유지하면서, 분단선을 제외한 땅을 모두 carve out 하고 구름 다리들과 선큰가든을 디자인하여 ‘D.M.Z. Wall-Complex’를 방문하는 남북한 사람들에게 ‘Over the borderline & Below the borderline’의 길로 분단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편 나라를 조망하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적 구현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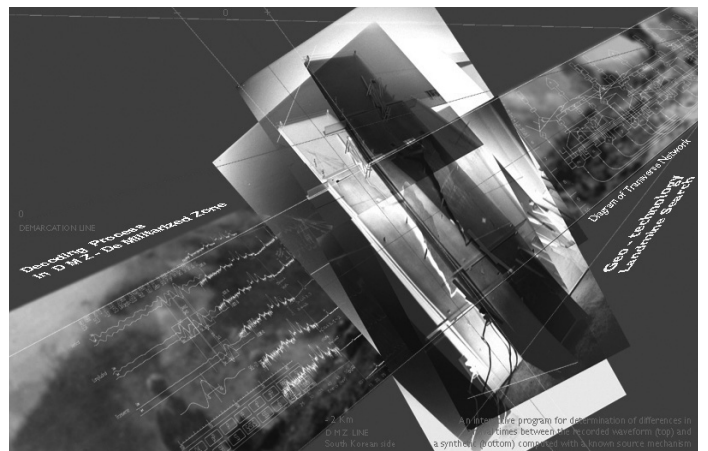
‘D.M.Z. Wall-Complex’는 3가지 기능의 프로그램(military, commemorative, and touristic interven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가족을 찾고 만나는 공간은 물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공간도 포함한다. 통일이 될 경우, wall-complex 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을 때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프리젠테이션 내용 중)



DMZ-Wall and Bridge Complex

▶ 두 번째 프로젝트 \_Golf Course Over Mine Field : D.M.Z. 인근 문산에 위치한 ‘The World’s Most Dangerous Golf Club’으로, 뉴욕타임즈에 개재된 지뢰밭과 수뢰밭에 위치한 D.M.Z. 골프장과 인근지역을 RejuveNATION하는 프로젝트다.



DMZ-Landmine Golf Course

“골퍼(Golfer)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및 전쟁지역 관광의 진정성 (authenticity of war-tourism)이라는 맥락 아래, 골프장의 지뢰밭과 수뢰밭을 rejuveNATION의 디자인 요소로 포괄하고 통합하였다. 확장된 골프코스는 골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에 부유하는 flying golf course로 디자인했고, 클럽하우스 건물은 새로 만들어지는 인공대지 골프코스 밑에 매달아 구축(suspended structured)되며, 바닥을 유리(glass floor)로 처리하여 골퍼들이 발아래의 지뢰밭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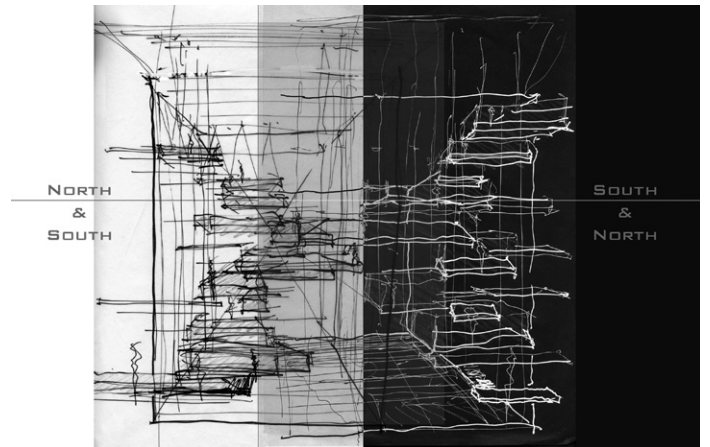
Watermine Swimming Pool 또한 골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에 부유하는 flying swimming pool이며, 유리 수영장과 유리 선큰가든으로 수뢰밭을 가까이서 생생히 관찰할 수 있는, 여행자들의 모험심(keen sense of adventures)을 건축적 어휘로 구현하고 도출시켰다.”

(프리젠테이션 내용 중)

강연이 끝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인 말레이시아 건축사 Indra Ramanathan 및 1차로 강연한 6명의 연사들과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필자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강연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모든 프로그램의 콘텐츠들이 매우 풍성했으며, 포럼의 에너지와 정신(spirit)으로 RejuveNATION이 많이 되었다. 공개 강연회에서 D.M.Z. 프로젝트들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청중들의 많은 관심 표명에 매우 놀라왔으며, 강연 도중 계속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흐름을 놓칠 뻔한 순간들도 몇 번 있었다.

또한, 한국의 D.M.Z. 상황에 대해서 많은 나라의 건축사들과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짐에,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책임감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강연을 마치고는 우리나라의 분단선 분쟁(borderline conflict)과 흡사한 맥락과 상황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특강 초청을 받기도 하였다. 헝가리와 파키스탄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것은, 이번 포럼은, 특히 올해 봄 학기부터 처음으로 한국의 건축학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싱가포르와 홍콩



Buffering Zone Between 2 Koreas

학생들이 몰려와 필자의 디자인을 스케치한 노트북에 사인 공세를 해왔다. 각 슬라이드 페이지가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야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케치가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자못 놀라왔다. 우리나라의 건축학도들도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다양한 건축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경험과 체험, 소통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건축적 커리어가 더욱 더 풍성해지고 도전적으로 될 것임을 믿어 마지않는다. ㄸ

